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 FAX: (031)470-3116

불성은 에너지 공급하는 절대 주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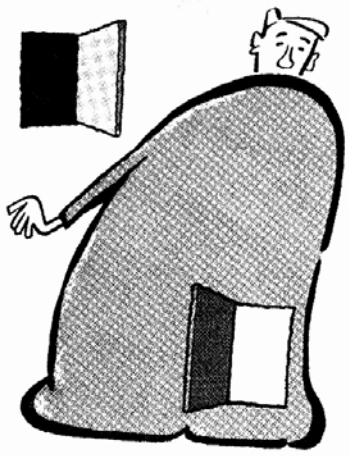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관' 하지 않으면 살기 어렵고 힘든일 많아

마음은 찰나에 모든걸 깨끗이 할 수 있어

스님: 여러분을 오래간만에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땐 법당에 계시는 진주지원 신도님들 뿐만 아니라, 궁금한 점이 있는 분은 서로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니까 여러분께서 생각해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1: 스님, 저는 사업 관계로 5, 6년 전 스님을 친견할 때마다 사업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계속 부도와 실패만 거듭하였습니다. 처음엔 서운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지원장 스님께서는 시려울 정도로 간절하게 마음을 내어 주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 항상 저의 부족함을 느끼고 때로는 돌아서서 여러 차례 눈물도 흘렸습니다.

세상 사는게 환상놀음

이런 시간이 지난 후 되고 안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쪽이든 기울지 않은 마음 자리에서 간절하게 수행해 나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업이나 습 이전에 저의 게으름 때문에 때로는 힘들 때도 많이 있지만 저로서는 이 방법 이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음을 알기에 어느 자리 어떤 장소를 가더라도 항상 근본에서 지혜롭게 이끌라고 관하면서 그냥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기회가 되어 이렇게 스님께 인사도 올리고 간단하나마 질문도 드리게 됨을 다시 한 번 근본에 감사 드립니다.

법회때 마다 새벽부터 이렇게 와서 법문을 직접 청하여 듣는 것과 지방 같은 경우 그냥 비디오 법문이나 카세트를 통하여 듣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스님: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내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기 이전에 한번 얘기할 테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권투를 하는데 이쪽이든 저쪽이든 상황에 따라서 때리지 정해 놓고 때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정해 놓고 때리고 정해 놓고 맞는 것이 아니니 그 가운데 누가 맞았고 누가 때렸고, 어딜 때렸고, 어딜 맞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비디오로 보든 이렇게 실지로 듣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달린 겁니다. 우리들의 환상이 진짜입니까? 그것은 환상 놀음입니다. 컴퓨터로 놀이를 하는 것도 환상입니다. 그런데 왜 환상이 아니 게 보일 수도 있고 환상으로 보일 수도 있느냐면, 그거는 여러분의 몸이나 내 몸이나 몸은 공체입니다. 그래서 환상입니다. 환상인데 지금 내가 말을 하는 것과 어저께 내가 말해 놓은 것을 음미해서 생각할 때, 누가 때린 거냐? 어딜 때렸느냐? 어딜 맞았느냐? 이거를 생각해 볼 때, 때린다고 하고 때리지도 않았고 맞는다고 하고 맞지도 않았고 어딜 때린 것도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때린 사이도 없고 맞은 사이도 없는 거죠. 그 비디오를 본다고 해도 보실 때에 여러분이 생각하면 생각한 대로 불이 들어오고 생각을 안 하면 생각 안 하는 대로 불이 안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건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공부를 안하면 모르지만, 그 실체에도 내가 있고 지금 여기도 내가 있는데 내가 있는 자체가 환상입니다. 이것도 환상 그것도 환상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실천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셋째 일요일날은 여지껏 법회를 해 놓은 것이 있으니 그걸 한 번 다시 되집어서 보여 드리는 것이 공부하는 데 실질적으로 좋겠다. 그리고 첫째 일요일날만 내가 하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과거도 현실로 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나 컴퓨터로 놀이하는 거나 마찬가집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거는 꼭 말을 해야만 되겠기에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왜 관하라고 했느냐? 관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살기 어렵고 괴롭고, 하는 일도 그렇고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는 일이 많은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살아야만 되겠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왜 관하라고 했느냐 하면 자기가 태어날 때 자기 모습은 부모의 인연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지만 생명의 능력은, 생명력은 자기가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 원소란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 모습이 생기면 바로 모습 아닌 자기를 진짜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불성입니다. 그것이 천차만별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바로 절대적인 에너지 처입니다. 그래 주처라고 그러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주처를 자기가 활용할 수 있다는 그 점이, 우리 몸도 공체이기 때문에 속에 제각기 모두 분리돼서 작용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뚱이 속도 지구와 같기도 하고 우주와 같기도 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누가 하고 누가 고통을 받고 누가 일어나는 문제들을 당하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됐기 때문에 모습 있는 자기는 모습 없는 자기를 진짜로 믿어야 됩니다. 진짜로 믿어야 태평해지죠. 진짜로 믿어야 말겨도 그게 실천으로 옮겨지고 한데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공법으로서 공용을 하는 겁니다.

놓으면 편히 살 수 있어

그러니까 텔레비전으로 보나 누구에게 들으나 지금 여기서 들으나 어떤 생각으로 듣느냐에 따라서 문제는 커지고 문제는 달라지는 겁니다. 육조 스님은 금강경 읽는 소리를 듣고서 깨우쳤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남이 읽는 소리나 하는 소리나 내가 지금 하는 소리나 뭐가 다릅니까?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는 하나도 빼놓을 수 없다는 사실, 그대로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버리고 사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을 가지고 마음대로 못 하죠? 말을 가지고도 마음대로 말을 못 하죠? 또 사용하는 것도 마음대로 사용치 못하죠?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있어요? 마음대로 하려면 그냥 그대로 자기 실체를 알아야 되겠죠. 그게 어렵다고 생각지 마세요. 그냥 자기한테 원소가 들어 있으니까요. 자기가 있으니깐 들어 있구요. 그 원소가 없으면은 자기는 송장이 되는 거니까요. 누가 대신 살아줄 수는 없어요. 모두가 다. 대신 죽어 줄 수도 없구요. 먹고 자고 행하는 것을 도무지 못해 주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와서 여러분이 걷고 여러분이 행하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안 가면은 서로 토론을 자주 가지다 보면 알게 될 겁니다. '너만이 알게 해 줄 수 있어' 하고 자기 불성 주인공을 자꾸 찾아보십시오.

질문2: 생사를 뛰어넘는 큰 가르침에 정말 감사 드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요즘 고도화된 과학으로 생명체를 복제하고, 유전자 조작으로 질병이 치유됐을 때 치유되기 전의 업식은 어떻게 되는지 질문 올립니다.

스님: 업식이라고 하기 이전에 우리 몸을 볼 때 육등반으로 나누어져 있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세포 하나 하나가 모두 육등반으로 나누어져 있으면서 그게 다 다르단 말입니다. 세포가 다르니까 팀들이 다른 겁니다. 팀들이 다르니까 생김도 다르구요. 그러니까 세포를 가지고 유전자를 가지고서 병을 치유한다 해도 그 유전자의 의식은 그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원래 있던 유전자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서도 변함없이 그 짓을 한다는 말입니다.

악쓰지 않고 사는 도리

예를 들어서, 수술을 했는데 뭘 줄도 모르던 사람이 아주 뜀박질을 참 잘하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수술을 할 때 그런 유전자를 넣고 다리 부러진 데를 수술한 겁니다. 왜 그렇게 잘 뛸까요? 그 유전자는 차원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씩 생긴다는 얘기죠. 결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좋지 않는 거는 모르지만 좋은 거는 지금 말해서 장땡이죠. 뭐. 좋지 않은 거는 또 좋지 않은 대로 세세생생 나갈 수도 있는 문제구요. 그래서 좋은 거 반이라면 언짢은 거 반이 속한다 이런 뜻이죠.

질문3: 저는 일상생활에서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근본을 믿고 주인공에 관하면서 생활 하니 제 개인적으로는 모든 것이 편안하고 걱정거리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소한 일이나 제가 하고 있는 사업과 주변 일들에 무관심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이런 상태가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주변의 일들에 대해 의도적으로 마음을 내야 하는 것인지 혼동스러운 때가 있습니다.

소님: 편안하니깐 그러시겠죠?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더러운 물도 바꿔 쓸 수 있다. 이건 한 찰나입니다. 마음은 한 찰나에 그 모두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다 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다 놓으면, 새로 입력이 들어가면 앞서의 입력은 없어지면서 바뀌지는 겁니다. 바뀌지기 때문에 할 일이 없어지고 편안하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정도가 되죠. 바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들지, 바쁘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 앉아 계신 분이나 나나 모두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벌써 원소를, 자기가 생명력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생명력을 가지고 들어가서 모습을 받는단 얘기죠. 그래서 이 모습을 받을 때 부모의 은공으로 받았다고 해서 부모은중경도 나온 겁니다. 그런데 자기 원소가 수억겁을 거치면서 그렇게 진화하고 형성된 그 고생은 모르죠. 자기가 그렇게 고생하고, 즉 말하자면 태어나는 거는 자기 소관입니다. 부모의 소관이 아니라 자기의 소관이란 말입니다. 차원이 높고 낮고 그런 것도 자기의 소관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모습 있는 인연을 따라서 소중하게 받은 그 모습으로, 바로 보이지 않는 자기를 진짜로 믿어야 된다. 그건 바로 색색가지로 만법을 행할 수 있게 하는 에너지인 것입니다. 그 에너지를 부처님께서는 별성을 봤다고 했고 또 불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주장자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잘하면 올라감이 없이 한 등 올라가고, 우리가 지혜롭게 찾아야 문 없는 문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다. 문을 찾아 다니는 건 육신을 갖은 사람이나 문을 찾아 다니지, 육신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문이 있어도 그냥 문이다. 이렇게 될 때 그 원소 자체에 불성은 문이 없어도 왕래할 수 있는 겁니다.

원소는 왼쪽 두뇌의 정신계를 말하고 또 바른쪽은 물질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혼합시켜서 같이 돌아가는데 여러분은 같이 돌아가는 거를 이해를 못 합니다. 그거를 이해 하신다면 정말이지, 예전에 어떤 스님이 대자대비라고 '대' 자 둘을 써 놓으신 게 있는데 누구든지 '대' 자 둘을 써 놨으니까 대자비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요, 앞도 없고 뒤도 없고 그냥 걸어갈 뿐입니다. 그냥 길을 하나, 주장자를 그려 놨거든요. 누운 주장자 선 주장자가 있는데, 누운 주장자를 그려 놨으니 그대로 갈 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 대자대비도 그렇게 앞도 없고 뒤도 없다. 대자대비니까 그렇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누운 주장자이니까 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냥 걷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가 지혜가 트이면 열 가지 백 가지가 트인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들이대면 법이 되고, 어떤 것이든지 들이대면 그대로 결정이 나고, 어떤 것이든지 들이대면 그냥 활용이 되는 겁

☞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2000년 10월 9일 배포!

살아생전에 「우리말화엄경」 간행불사를 해봅시다

한권의 「화엄경」을 주문하는 것도 간행불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대방광불 화엄경

백 용 성 대종사 번역 / 사재동박사 윤문
4×6배판 (크라운판) / 1,620면 (42g미색코트지) / ₩100,000원
최고급 순금 금장 양장 제본/ 인조가죽 카바

이조 500년의 배불정책 아래 그 어려웠던 시절에도 뜻있는 스님들은 몇 년을 주기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탁발로 시주받은 곡물과 푼돈을 모아 몇질의 화엄경을 간행하여 새로 조성하는 불상의 복장에 넣기도 하고, 법당 상단의 부처님 좌우에 모시고 조석으로 예불하고 기도하며 신앙의 귀의처로 삼았습니다.

「인과경」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화엄경」을 독송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거나, 「화엄경」을 만져보는 공덕만으로도 지옥·아귀·축생에 떨어지는 업보를 면한다 하였고, 만약 「화엄경」을 간행하면 제불보살과 화엄신장의 옹호로 삼재팔난·과나재구설·병고액란이 소멸되고, 선망부모 등 영가가 천도되어 생전에 원하는 소원을 이룬다 하였습니다. 특히 뱃속의 태아를 낙태한 어머니가 「화엄경」을 수지독송하면 구천을 떠돌던 중음신의 영아가 원한을 풀고 좋은 세상에 난다' 하였습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독송할 수 있는

「우리말 화엄경」을 번역하신 백용성 큰스님은 3·1독립운동의 33인중의 한분이며 동산·고암 종정스님의 스승이고, 성철종정과 광덕·도문스님의 노스님이기도 합니다. 또한 경허스님과 함께 당대 최고의 대 선지식이었고, 생전에 치아에서 수십과의 생사리가 나온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선(禪)과 교(敎)를 통달한 도인의 혜안으로 번역하였기 때문에 「우리말 화엄경」은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이 시대의 가장 귀한 법보입니다.
특히 가정에서 조석으로 기도생활을 하는 불자라면 불상 대신 반드시 「화엄경」을 모셔야 합니다. 「화엄경」은 법신불(法身佛)이므로 부처님을 모시는 것과 같습니다.

♣ 단체 동참시(30권 이상) 권당 8만원. 동참자 이름과 발원문을 별도로 화엄경에 인쇄합니다.
♣ 불사회향·회갑·진갑·칠순·49재·100재·영가천도를 위한 법공양

단 한권의 화엄경을 주문하시는 것도 간행불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바로주문하시면 ₩85,000원(송료포함)

■주문처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55-2
☎(02) 734-7614, 739-8745 FAX (02)735-2344
·계좌 : 농협 053-01-102503 (김정길) 신한 324-12-407937 (김정길)

문서포교에 앞장서는 弘法院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55-2 ☎(02) 739-8745 / 734-7614 / FAX 735-2344